

[서 평]

6·25戰爭에서 마오쩌둥의 역할 재조명

- 데이빗 쑤이(David Tsui) 한국국제전략연구소 譯,
『中國의 6·25戰爭 參戰』(서울: 다와, 2011) -

최윤철*

한국전쟁에 있어서 중국의 참전배경에 관한 다양한 가설과 논문들, 공간사들이 발간된 바 있다. 본 저서는 데이빗 쑤이가 1999년 영국 옥스퍼드대학에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을 완역한 것이다. 데이빗 쑤이의 본명은 쉬쩌룽(徐澤榮)이다. 저자는 1954년 중국 공산당 고급간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부모는 문화대혁명 시기 박해로 사망했고 이후 순탄치 않은 인생 여정을 걸어왔다. 1999년 박사학위 취득 후, 연구활동 과정에서 2000년 7월 중국 당국으로부터, 6·25전쟁과 관련된 연구과정에서 ‘출판물업무의 불법 경영’과 ‘해외에 비밀정보 제공’ 등의 혐의로 체포되어 13년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2011년 감형되어 석방된 전력을 갖고 있는 등, 중국과 서구 학계에서 정치적인 면뿐만 아니라 학문적으로도 주목 받고 있는 학자이다. 쑤이는 본 저서에서 구 소련 해체 이후 러시아와 중국에서 봇물처럼 쏟아져 나온 공간자료를 정리하여 ‘중국의 6·25전쟁 개입과정과 배경’

* 상명대학교 국가안보학과 교수

을 기존의 연구와 통설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부 결정의 초기단계

제1장 모스크바와 북경, 평양의 요청 접수(1949년 1월~4월)

제2부 결정의 확정단계

제2장 모스크바와 북경, 평양의 남침제안 승인(1950년 1월~6월)

제3장 개입을 위한 준비(1950년 1월~9월)

제4장 협상을 위한 외교(1950년 6월~10월)

제3부 결정의 실행단계

제5장 개입결정의 실행(1950년 10월 1일~19일)

제6장 중국의 6·25전쟁 개입 목적(1950년 10월~1951년 7월)

제7장 중국의 외교(1950년 10월~1951년 7월)

결론

저자는 제1장에서 김일성의 무력남침 제안이 언제, 그리고 어떤 배경으로 시작되었는가? 그리고 그러한 반응의 배경이 무엇이었는지를 분석하고 있다. 1949년에 스탈린에게 두 번이나 건의된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스탈린은 내심으로 동조하면서도 그 승인에는 신중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이나 가장 중요한 요소로 ‘김일성의 남침이 한반도에서 미·소의 직접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으로 보았다. 반면,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대한 마오쩌둥(毛澤東)의 반응은 스탈린보다 처음부터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했다. 그 이유로, 1949년 5월에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남침 개시 후 외국군이 개입 시에는 몇 가지 조건을 전제로 해서 중국은 군대를 파병하겠다’고 북측에 약속한 점을 들었다. 1949년 5월 초

마오쩌둥과 김일성의 특사 김일과의 회담에서,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대한 마오쩌둥의 장차지원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조선측으로 구성된 중공군 3개 사단을 북한군으로 이양한다는 마오쩌둥의 동의를 내려졌는데, 저자는 마오쩌둥의 이러한 언급이 명백하게도 중국의 6·25전쟁 개입을 시작한다는 전환점으로 보았다.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제안에 적극 호응한 배경에 대해서, 저자는 ‘프롤레타리아국제주의’와 ‘마르크스-레닌주의 전쟁관’이라는 이념적 요인, 중국혁명기간 중 ‘조선의 전우들로부터 많은 빛’을 진데 대한 ‘도덕적 책무’, 또 북한이 남침할 경우 남한 측에 미국군 보다는 일본지상군이 파견될 것이라는 ‘오산(誤算)’에 바탕 했던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모든 분석을 거친 후, ‘6·25전쟁의 개입 준비에 중국이 참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그리고 훨씬 깊숙이 시작되었다’고 매듭지었다.

제2장에서는 몇 번에 걸친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대해서 미군의 개입 가능성을 두려워하여 거절해오던 스탈린이 1950년 1월에 동의하게 되는 경위를 기술하고 있다. 김일성의 제안에 대해, 스탈린은 당시 그가 보였던 표현과는 달리 내심으로는 전적으로 부정적인 것은 아니었다고 보았다. 저자는, 김일성의 제의가 반복되는 동안 스탈린은 북한의 남침 시, 외국 군사력이 개입하여 한국을 도우려 한다면 외국 군사력에 대응하여 중국으로 하여금 군사력을 파견토록 하고, 북한을 돕는 모든 책임을 마오쩌둥에게 씌운다는 책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1948년 7~8월 류샤오치(劉少奇)의 모스크바 방문 시 스탈린은 위 책략의 실현을 위한 조치를 밟기 시작했고, 마오쩌둥으로서는 ‘한반도에 중국 군대를 보내라’는 스탈린의 요청에 따르는 것이 불가피했다고 보고 있다. 달리 표현하면, 스탈린은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마오쩌둥이 자신의 명령을 따르

도록 했다는 것이다. 스탈린의 명령을 따른다면 이제 막 탄생된 신(新) 중국과 중국공산당 및 인민해방군의 생존과 발전에 너무나도 필수적인 전폭적인 지원을 받을 것이고, 따르지 않는다면 냉대 받고, 처벌 받거나 혹은 스탈린에게 버림받을 것이라는 점을 마오쩌둥은 명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한반도에 대한 중국의 지정학적 인식과, 소련에 대한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정치적 종속’이 6·25전쟁 참전과 관련한 중국의 정책적 선택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그리하여 김일성의 남침 후 한국을 돕는 외부세력이 개입 시 중국은 지상군을 파병하고 소련은 무기·장비와 공군지원을 제공한다는 스탈린의 구상에 마오쩌둥이 동의하게 된 것이며, 김일성의 남침 구상에 스탈린이 중국의 개입을 연계시키지 않았다면 6·25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저자의 견해이다. 저자는 스탈린의 승인(承認) 배경을 분석하면서 스탈린의 사고 과정을 다음처럼 기술하는데, ‘첫째, 미 지상군이 개입한다 하더라도 대규모 군사력 투입 전에 북한군은 한반도 남부를 석권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만일 이것이 실패할 경우 중국이 소련을 대신하여 북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게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구상을 승인하게 되는 결정적 동인에 대해, 저자는 중국군의 6·25전쟁 개입이라는 역할에 대한 마오쩌둥의 동의가 성사되었다는 데서 찾고 있다.

제3장은 마오쩌둥이 6·25전쟁을 결심한 이후부터 중국군이 실제 압록강을 도하하여 6·25전쟁에 투입되는 1950년 10월 19일 이전까지의 시기에 실시된 중국의 군사적 준비사항을 다루고 있다. 중국의 6·25전쟁 개입을 위한 군사적 준비사항에 대해, 저자는 그 자신의 인터뷰를 비롯한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저자는 먼저, 중국군의 6·25전쟁 투입 준비를 위한 중국지도부의

회의가 여러 차례 있었다는 점과, 그 토의 내용이 무엇이였는가를 소개한다. 이러한 회의가 1950년 9월 15일에 실시된 인천상륙작전 전에 9 차례, 그리고 인천상륙작전 후부터 실제 중국군이 투입된 1950년 10월 19일까지 5 차례가 있었다는 점과, 이 회의와 연계된 중국군 부대의 이동과 전개상황에 대해서 서술하였다. 특히, 6·25 전쟁 발발 7개월 전에 동북지역으로 7개 야전사단이 이미 이동 배치되었고, 7월 13일에는 동북변방군의 편성이 결정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동북변방군은 동북지역을 방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6·25전쟁에 투입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점, 그리고 8월 초에는 동북변방군이 중국 본토로부터 추가 이동된 4개 군단을 포함한 26만 병력을 휘하에 거느리게 되는 과정에 대해서 상술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중국군 투입 전에 실시된 중국의 한반도의 지형과 군사상황에 대한 정보활동 내용이며, 또 한국에 투입된 중국군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 통역원 겸 연락원을 사전에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는 사항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점이다. 이어서 6·25전쟁을 위한 전쟁예산의 편성, 병참 준비 그리고 투입될 총 병력규모와 제대 편성의 결정 등이 서술되어 있다. 중국지도부는 1950년 8월 30일의 제8차 회의에서 36개 사단과 11개 독립연대를 포함한 총병력 70여만 명을 3개 제대로 투입한다고 결정하였다. 한편 마오쩌둥은 중국군이 6·25전쟁에 투입되기 전에 소련제 무기로 무장할 것을 원했으나 스탈린은 중국군의 투입이 실현된 다음에야 무기를 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고 이를 결국 관철시켰다고 주장하면서, 저자는 스탈린이 중국군의 6·25전쟁의 실제 개입을 소련제 무기 공급의 전제 조건으로 삼았다고 분석하였다. 추가적인 연구의 필요가 있는 사항은, 중국 지도부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하려 했다는 내용이다. 즉, 인천상륙전에 중국군을 한반도에 투입하여 38도선 일대까

지 남진시키는 것은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투입을 지연시켰고, 유엔군이 38도선을 넘어 북진하여 한반도 북부의 험악한 산악지대에 도착했을 때 광범위한 전선에서 분산된 유엔군 부대를 기습적으로 각 개격파 한다는 구상을 택하였다는 것이다.

제4장은 중국의 외교활동에 관한 내용이다. 특히, 전반부는 6·25 전쟁 투입을 위한 군사적 준비와 동시에 진행되었던 중국의 유엔 가입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상세히 다루고 있다. 저자는 본문에서, 중국은 소련의 협조 하에 6·25전쟁이 시작되었고, 중국군이 실제 투입되기까지의 4개월 동안에 중국은 유엔 가입 목적을 위해 일곱 차례에 걸친 집요한 노력을 기울였으나 유엔회원국으로의 가입은 끝내 이룰 수 없었고, 중국의 관심사에 대한 유엔의 토의에 중국대표를 참석시키는 정도만 성공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저자는, 중국의 6·25전쟁 개입 전에 중국지도부가 주된 노력을 기울였던 분야를 세 가지로 구별하고 있다. 첫째는, 6·25전쟁의 개입을 위한 군사적 준비이다. 여기에는 부대의 편성·이동·전개·작전방침의 구상과 세부 작전계획의 발전, 전쟁예산의 편성 및 정보활동 등이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제3장에서 다루었다. 둘째는, 중국의 외교적 노력으로 중국이 유엔회원국으로 정식 가입하기 위한 것이며, 셋째는, 낙동강에서 방어하다가 인천 상륙작전을 계기로 반격하여 북진하는 유엔군을 38도선에서 정지하도록 하는 노력으로 보았다. 중국은 전쟁을 도발한 북한이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 군을 투입하겠다고 소련과 북한에 이미 약속을 하였고, 또 그를 위한 준비를 진행시켜 왔으나, 6·25전쟁에 개입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랐고 또 그러한 노력을 했다고 보았다. 이럴 경우 북한의 생존은 걱정이 없게 되고 중국이 한반도 개입을 하지 않아도 될뿐더러 유엔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고 보았다. 이는 북진하는

유엔군이 38도선까지만 진출하고 정지할 때 성사될 수 있는 것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중국은 유엔군을 38도선에서 정지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군사적 개입의도를 신중하게 감추었다고 보았다. 중국은 유엔 가입과 또 유엔군을 38도선에 묶어두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는 한반도로의 상징적인 파병조차도 실시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군사적 책략은 결과적으로 외교적 노력을 손상시켜 유엔군을 38도선에서 정지시킬 수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중국군의 한반도파병 직전까지의 경과를 다루고 있다. 저자는, 1950년 10월 1일부터 10월 8일間に 실시된 중국 최고 위층의 회의들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 기간에 6·25전쟁 참전 날짜가 결정되고 파병부대의 명칭을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으로 하고, 그 지휘관을 팡더화이(彭德懷)로 한다는 것 등의 결정 과정을 기술하였다. 저자는 이 과정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김일성에게는 즉각 알려진 반면 스탈린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음’을 부각하여, 중국의 참전배경이 중국 본토에 대한 미국의 침략가능성을 중국 지도부가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일부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제6장은 중국의 6·25전쟁 개입목적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중국은 6·25전쟁 개입 후 1951년 휴전협상이 개시될 때까지 14개의 개입목적들을 추구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개입목적의 달성은 주로 작전의 결과에 따라 나타났다고 보고 있다. 이 중, ‘북한의 구원’이 개입목적의 첫 번째에 해당하는 것인데 이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면서, 한편 ‘전체 한반도의 해방’이라는 개입목적은 결과적으로는 힘의 결여로 성취되지 못하였다고 보았다. 또 다른 개입목적으로는 6·25전

쟁의 개입으로 ‘중국의 유엔 가입’과 ‘미국의 대만 포기’를 관철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시키는 방법으로 서울을 포함한 남한 영토 일부를 장악한 후, 이의 상황을 조건으로 중국의 유엔 가입 및 미국의 대만 포기를 요구했다고 주장한다. 저자는, 중국군이 1951년 1월 3차 전역(戰役) 결과 서울을 점령한 후 안성-평택 선까지 진출하였고, 1951년 1월 11일 유엔 안보리는 ‘선 휴전 후 협상’ 결의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중국의 유엔 가입’과 ‘미국의 대만 포기’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성공적인 군사작전을 목도한 마오쩌둥은 평더화이의 강력한 건의에도 불구하고 유엔 결의에 응하지 않아 중국의 유엔 가입과 대만 해방이라는 정치적 목적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이 여러 자료의 분석을 통해 얻은 저자의 결론임을 주장하고 있다.

제7장에서는 휴전과 관련한 마오쩌둥의 전략을 살피고 있다. 저자는, 마오쩌둥은 북진하던 유엔군을 북한지역에서 철수시킨 성과에 고취되어, 제6장에서 기술된 ‘6·25전쟁의 휴전과 함께 중국의 유엔 가입과 미국의 대만 포기’ 등을 주장한 것과 같이, 중국 측에 유리한 휴전 조건을 강경하게 고집함으로써 적절한 시기를 놓쳤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중국은 힘의 결여로 모든 주장을 접게 되었고, 중국적으로는 1951년 7월의 휴전협상 개시 시 중국의 마지막 개입목적 이었던 ‘전쟁 전 상황으로의 복귀’를 기준으로 협상에 임하게 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지막 결론에서, 저자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에 대한 개인적인 평가를 정리하였다. 저자는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은 6·25전쟁 참전의 결과로 얻은 것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주장한다. 얻은 결과는, 첫째 중국은 전쟁을 통해 서방군대와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

황금의 기회를 제공 받았다고 보았고, 둘째 한반도에서 중국의 군사적인 성공은 국제사회에서 중국으로 하여금 강대국의 지위를 얻게 해주었다고 보았으며, 셋째 중국은 6·25전쟁에 참전함으로써 소련의 전반적인 지원을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면서 결론을 맺고 있다.

이상에서 저자는 중국의 6·25전쟁 참전 개입과정 및 배경과 관련하여 1949년 1월부터 1951년 7월까지를 결정의 초기단계(1949. 1월~4월), 결정의 확정단계(1950. 1월~10월), 결정의 실행단계(1950. 10. 1~1951. 7월)로 구분하여 중국의 마오쩌둥, 소련의 스탈린, 북한의 김일성과 주고받은 각종 전보 등과 인터뷰 자료를 통하여 6·25전쟁의 개전(開戰) 준비에 중국이 참여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그리고 훨씬 깊숙이 시작되었다고 분석하고 있고, 스탈린이 1950년 1월에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동의하게 된 결정적인 요인을 1950년 5월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남침구상에 동의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저자는 주장하는 바를 다양한 자료와 새로 발굴된 구 소련과 중국 당안(檔案) 문서들을 통해 각각의 사실들을 시계열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함으로써 주장하고자 하는 바에 신뢰성을 주고 있다. 그러나 특정 부분의 분석에 있어서는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어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제1장에서, 저자는 김일성의 무력 남침에 대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반응과 배경을 분석하면서, 1949년 두 번에 걸쳐 건의된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대해 스탈린은 내심 동조하면서도 그 승인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부정적이었으며 그 직접적인 이유를 김일성의 남침이 한반도에서의 미·소의 직접 대결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김일성의 남침제안에 대하여 마오쩌둥은 스탈린보다 처음부터 긍정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저자는 이러한 마오쩌둥의 긍정적 태도는 이데올로기적 요인, 도의적 책무, 그리고 남침시 미국보다 일본 지원군이 파견될 것으로 바라는 오산(誤算)에 기초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뒷받침 하는 사실로 1949년 5월 김일성의 특사인 김일과의 회담에서 마오쩌둥은 장차지원을 약속했으며 조선족으로 구성된 중국인민해방군 3개 사단을 북한으로 이양하는 데 동의했다는 것을 들면서, 중국의 6·25전쟁의 개입 준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이른 시기에 깊숙이 시작 되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지원에 대한 조건을 내 건 자체는 지원에 대한 부정적 요소도 동시에 내포하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조건으로 명시된 ‘국제적 상황’, ‘미국과 소련의 상황조건’, ‘중국 국내 문제의 완벽한 통제’라는 사항은 사실상 완벽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함을 의미하며, 그러한 상황조건에 기초하여 지원한다는 것은 장차지원을 약속했다기 보다는 이념적 연대를 같이 하는 지도자로서 대단히 일반론적이며 수사적인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스탈린보다 훨씬 이전에 한반도에서의 개전에 긍정적이며 장차지원을 약속했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마오쩌둥의 조기 개입 결정의 배경에는 김일성의 특사인 김일의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하는 조선족 부대의 입북 문제이다. 조선족 병사의 귀국 문제가 제기된 시점은 1949년 12월 29일로서 선즈화(沈志華)¹⁾는 관련문서들을 토대로 시기적으로는 일치하지만 남침지원을 상관관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없다고 분석하고 있다. 조선족 병사의 귀국 문제는 린바오(林彪)가 먼저 제기하였고 그 배경에는 조선족 부대의 간부와 사병들이

1) 2017년 현재, 중국 화동사범대의 중신교수이자 화동사범대학교의 국제냉전사연구센터 소장이다. 선즈화의 논문과 저서는 다음을 참조. 선즈화(沈志華), “소련과 한국전쟁: 러시아 비밀해제 당안(檔案) 속의 역사 진상,” 『현대북한연구』, 3권 1호(2000); 선즈화(沈志華), 최만원 역, 『마오쩌둥 스탈린과 조선전쟁』(서울: 한성인쇄, 2010); 선즈화(沈志華), 김동길 역, 『조선전쟁의 재탐구: 중국소련조선의 협력과 갈등』(서울: 선인, 2014). 등이 있다.

귀국조치를 요구하며 소란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으며 당시 린바오가 관할했던 지역이 조선족들이 최초 지원하였던 지역 보다 상당히 떨어진 거리임을 고려하면 심리적으로 상당한 불만요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더욱이 1949년 12월은 스탈린이 아직 김일성의 남침 결정에 동의하지 않고 있는 시점이며, 1950년 1월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제안에 협의하기 위해 회담을 갖기로 한 사실조차도 마오쩌둥에게 비밀로 부치라고 김일성에게 지시했던 점을 고려한다면, 조선족 부대의 입국은 중국의 개입에 대한 전제조건 특히 김일성의 남침 제안과 중국군의 한반도 진입에 대한 소련의 승인이라는 요소에 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오쩌둥의 장차지원 약속과 조선족 부대의 입북 시기와 관련되어 마오쩌둥이 스탈린보다 훨씬 더 적극적 이었으며 훨씬 일찍 깊숙이 개입이 이루어졌다는 분석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여 진다.

두 번째는 마오쩌둥이 김일성의 남침을 승인하는 과정 중에서 스저(師哲)²⁾와의 인터뷰와 볼코그노프³⁾를 통해서 마오쩌둥이 스탈린을 방문하던 1949년 2월부터 1950년 2월까지 사이에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김일성의 개전과 관련된 한반도 문제를 토론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여기서 저자는 스저의 진술을 통해 마오쩌둥과 스탈린은 ‘개전과 관련하여 소련이 한반도에서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 직면하지 않도록 해야 함과, 한국전쟁에 개입하는 지상군에 대해 소련의

2) 6·25전쟁 전후(前後) 중국측 러시아어 통역관이었다. 마오쩌둥이 1949년 12월 모스크바를 방문할 당시 통역관이었으며, 정진협상 시기에도 통역을 담당했다. 저서는 다음과 같다. 師哲李海文, 『在歷史巨人身邊: 師哲回憶錄』(北京: 中央文獻出版社, 1996).

3) 드미트리 볼코그노프(Dmitry Volkogonov), 러시아 옐친 대통령 당시 대통령의 군사담당보좌관 이었으며 전사연구위원회 위원장, 최고회의문서보관소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하였다. 그러한 위치에서 크레믈린문서보관소에 있는 극비자료들을 자유스럽게 활용하였다. 주요 저서는 다음과 같다. 드미트리 볼코그노프(Dmitry Volkogonov)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역, 『스탈린』(서울: 세경사, 1993).

무기 및 공군 지원 제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음을 강조하는 한편,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중국인민해방군 내의 조선족 부대의 북한으로의 이양에 논의했다'고 주장함으로써, 마오쩌둥과 스탈린이 중소회의 기간 동안 한반도 문제에 대해 특히 전쟁 준비에 대한 사항은 없었다는 주장을 반박하고, 김일성의 개전 준비와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회담을 연관 짓고 있다. 저자는 이와 관련해서도 마오쩌둥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이전에 깊숙이 6·25전쟁에 개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당시의 문건들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1949년 12월16일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1차 회담에서부터 1950년 2월 22일 스탈린이 주북한(駐北韓) 소련대사인 쉬티코프에게 하달한 문건까지를 시계열적인 정리와 분석을 통해 스탈린과 마오쩌둥, 김일성 간에 이루어진 6·25전쟁 개전과 관련된 논의와 인과관계를 살펴 볼 수 있다. 1949년 12월 16일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회담록에 기록된 사실에 의하면, 마오쩌둥은 현재의 정세에 만족하며 중국의 발전을 위하여 전쟁 방지와 중국의 경제발전을 염원하고 있었다. 스탈린도 당시의 세계정세에 만족하고 있다.⁴⁾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전쟁 준비와 연관된 직접적인 대화를 나누었다고 보기 어려운 대목이다. 또한, 1950년 1월 17일 신임 주중(駐中) 북한대사 이주연(李周淵)의 환송을 북조선 외무상 박헌영이 주최한 오찬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루어진 대화에서도 정황을 엿볼 수 있다. 이날 오찬에는 북한 지도자들과 북한·중국·소련의 외교관이 참석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일성은 '조국 해방에 대해 언급하고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해서 스탈린을 접견하고 싶고 그것이 어려우면 베이징(北京)에 가서 마오쩌둥을 접견하겠다'고 했다. 쉬티코프는 이 자리에서 남침 승인은 어려울 것이라고 대답했다.⁵⁾

4) 국사편찬위원회, 편, "소련 내각회의 의장과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 주석의 회담 기록(1949년 12월 16일),"『해외사료총서 11: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서울: 천세, 2006), pp.50-55; APRF, f. 45, op. 1, d. 329, ll. 9-17.

1950년 1월 19일 쉬티코프는 상기 경위를 스탈린에게 보고했고, 여기서 쉬티코프는 김일성의 본심이 다른 곳에 있으며 취한 것을 핑계로 소련 사람을 떠보려는 태도라고 평가했다. 이후 스탈린은 쉬티코프의 전보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가 1950년 1월 30일 김일성의 개전 의지에 호의적인 제안을 갑자기 보내게 된다. 1950년 1월 31일 쉬티코프가 보낸 회신에는 김일성은 스탈린의 의견에 매우 만족하며 심지어 스탈린과 회견을 위해 모스크바로 가겠다고 한다. 이 시점에서 스탈린은 김일성의 개전에 동의하게 된 것이다. 1950년 2월 2일 스탈린은 쉬티코프에게 김일성의 개전과 관련하여 보충 지시를 통해 이 논의에서 마오쩌둥을 제외시키는 대목도 나온다. 이와 같은 순차적인 문건을 통해 보았을 때 1949년 12월 중소회담에서 스탈린과 마오쩌둥은 현 상황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었으며 한반도에서의 개전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원하지 않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중소회담에서 김일성의 개전에 대해 논의했다면 1950년 2월 스탈린이 김일성으로 하여금 마오쩌둥에게 기밀로 유지 하라고 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제2장에서 저자는 스탈린이 김일성의 남침 구상을 승인하게 되는 결정적 요인을 마오쩌둥의 동의여부에서 찾고 있다. 그러나 이를 결정적 요인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한 면이 있어 보인다. 저자는, 스탈린이 김일성의 개전 승인 요구에 대해서 초기에는 불가 방침을 보였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 마소의 직접적인 무력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고 보고, 중국군의 개입이 반드시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다양한 논점이 존재한다. 김동길 교수⁶⁾의 연구에 의하면 스탈린이 1950년 김일성의 개

5) 외교부, 편역, “쉬티코프가 김일성이 제출한 남쪽으로의 공격개시 문제에 관해 비신스키에게 보낸 암호전문,” 1950년 1월 19일, 『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문서 Ⅲ』 (미발간), pp. 60-62; ABPRF, f. 059a, op. 5a, p. 11, d. 3, ll. 87-91.

전 요구에 동의한 것은 자신의 세계전략에 의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김동길 교수는 1950년 8월 27일 ‘스탈린이 체코슬로바키아 가트발트(Klement Gottwald) 대통령 앞으로 보낸 전문’을 통해 스탈린의 세계전략을 분석하고 있다. 스탈린이 미국과 중국을 전쟁이라는 수렁에 빠지게 하여 유럽과 아시아에서의 미·소의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했다는 것이다.⁷⁾ 즉, 유럽국가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 확대 차단을 위해 6·25전쟁 쪽으로 미국의 관심을 분산시키겠다는 세력균형전략이라는 것이다. 스탈린은 전문에서 미국과 함께 중국까지 6·25전쟁에 끌려오게 되면 국제 세력균형 면에서 사회주의권에 이득을 안겨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중국의 개입은 분명 필요했으나, 스탈린의 지시에 의해 마오쩌둥은 선택의 여지없이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처지였음을 고려할 때 마오쩌둥의 동의는 사실상 형식적이었다고도 볼 수 있다. 알타체제 이후 계속되는 신(新) 국제 질서 속에서 동북아 상황을 볼 때, 스탈린의 세계전략 구상이 6·25전쟁에 미국과 중국을 끌어들이려 했던 것이 중국이 참전하게 된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제3장에서 저자는 마오쩌둥이 6·25전쟁 개입을 결심한 이후부터 중국군이 실제 압록강을 도하하여 6·25전쟁에 투입되는 1950년 10월 19일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에 실시된 군사적 준비사항을 다루고 있다. 저자는 중국지도부가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을 사전에 예측하고 있었고, 인천상륙 전에 중국군을 한반도에 투입하여 38도선 일대까지 남진시키는 것이 불리하다는 판단에서 투입을 지연시켰다고 보고 있다. 또한, 중국군이 한반도에 투입될 가장 유리한 시기를 유

6) 2017년 현재, 북경대학교 역사학과 부교수이며 북경대학교 한반도연구센터 부주임을 맡고 있다.

7) “스탈린이 고트발트에게 보낸 서신,” 1950년 8월 27일, РГАСПИ, f. 558, op. 11, d. 62, ll. 71-72.

엔군이 상륙한 다음 38도선을 넘어 북쪽으로 깊이 진격했을 때라고 판단했고, 이 점이 마오쩌둥이 중국군을 좀 더 빨리 투입시키지 않은 이유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최초 마오쩌둥의 전쟁 개입 전제조건인 ‘외국군의 개입 시 중국은 군대를 파병한다’는 방침에 기초해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6·25전쟁 개입 전에 중국지도부의 주된 노력이라고 보았던 ‘유엔군을 38도선에서 정지’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과 상치되는 내용이다. 중국군의 무장상태나 스탈린의 지시가 없는 상태에서, 유엔군의 인천상륙작전 시점에 중국군을 투입시킬 수 있었으나, 군사력 운용 측면에서 유엔군이 조중 접경지역으로 진출할 때까지 전략적으로 기다렸다는 것은 지나친 확대 해석으로 보인다.

저자는 또한 3장에서, 마오쩌둥은 6·25전쟁 개전 결정 사실과 개시일에 대해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관련된 사실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개전과 전쟁 개시일의 결정에 대해서 마오쩌둥이 상당히 소외되어 있었음을 알려주는 기록물들도 있다. 6·25전쟁의 개전 결정과 관련되어 마오쩌둥이 소외되었다는 기록이 상당히 존재한다. 김일성은 개전 문제를 마오쩌둥과 협의하기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기 전날 쉬티코프와 면담하였다. 여기서 김일성은 ‘마오쩌둥에게 원조 요구를 다시 하지 않을 것인데 왜냐하면 모스크바에서 그의 모든 요구가 이미 만족스럽게 이루어졌고 그곳에서 필요한 원조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한다.⁸⁾ 1950년 5월 13일의 김일성과 마오쩌둥의 회담 내용은 해제되지 않아서 당사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확인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마오쩌둥은 주은래를 통하여 김일성이 개전계획을 스탈린으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언급하는 데 대해 스

8) 외교부, 편역, “쉬티코프가 김일성의 방중(訪中)계획에 관하여 위신스키에게 보낸 전문(1950년 5월 12일),”『한국전쟁관련 소련 극비외교문서 Ⅲ』, pp. 69-70; ABPRF, f. 0102, op. 6, p. 22, d. 49, ll. 49-67.

탈린이 확인해 줄 것을 요구하는 전문을 보낸 기록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선즈화는 마오쩌둥은 1950년 4월에 스탈린과 김일성의 개전 결정 사실을 통보 받지 못했고 마오쩌둥은 스탈린에게 전보를 통해 확인할 수 밖에 없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1950년 1월 30일 스탈린이 슈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에게 보낸 전문을 보면 ‘개전에 관해 중국 측에 이러한 사실 자체를 비밀에 부칠 것’을 요구 하는 등 여러 대목에서 스탈린이 마오쩌둥을 소외시키려 했음을 보여주는 것은 시사점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마오쩌둥은 스탈린의 각본에 의해 철저히 움직여졌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맥락에서 마오쩌둥이 개전 결정 사실과 개시일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고, 더 나아가 일찍이 그리고 깊숙이 전쟁 개입을 준비해 왔다는 저자의 주장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전쟁개시일과 관련하여 서도, 저자는 월맹군 고문관으로 파견될 예정이었던 중국 동북군구의 장교들이 1950년 6월 20일 북경으로 오라는 명령과 관련 행사의 지연 등에 대한 몇 가지 추가적인 증언들을 통해, 마오쩌둥은 전쟁 개시일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1956년 9월 23일 마오쩌둥과 미코얀 대화록에서, 마오쩌둥은 ‘김일성의 개전 요구에 수차례 거절 했으나 김일성이 어떤 원조 요구도 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고 이에 미코얀은 ‘귀하가 반대해서는 않되는 것이었다’고 말한 점 등을 고려 할 때, 마오쩌둥이 이른 시기에 개전의지를 보였고 개전일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주장은 더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실제 마오쩌둥은 외신을 통해서 6·25개전 상황을 알게 되었다.

저자는, 1994년 러시아의 보리스 옐친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달한 한국전쟁 관련 자료 216건을 중심으로 역사적 사실들의 재구성을 시도하고 있다. 관련 사료들이 1994년 러시아 정부는

1949년에서 1953년간의 한반도에 관한 비밀문서들에 대해 비밀해제를 하였으며, 이들은 러시아 수상관저 내의 문서보관소와 대외정책 문서보관소에서 나온 것들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많은 학자들의 노력으로 관련 사료와 연구물들이 공개되었다. 같은 시기에 미국학자 웨더스비(Kathryn Weathersby)는 개인자격으로 러시아문서 보관소에서 전문적으로 6·25전쟁 관련자료 수집을 수개월에 걸쳐 진행하여 미국국가안전문서보관소에 비치하였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일부를 영문으로 번역하여 미국 우드로우윌슨센터 주관 윌슨국제학자 연구회지(紙)에 발표한 내용이 있다. 1997년에는 러시아연방 국방성 중앙문서보관소와 러시아연방 대통령문서보관소의 한국컬렉션 폰드가 러시아에서 해제되자 국사편찬연구소는 2006년도에 『한국전쟁, 문서와 자료, 1950~53년』의 제목으로 이를 발간한 바 있다. 이 외에도 6·25전쟁에 관한 중국의 저명한 학자인 셴즈화가 자신이 수집한 600여건에 달하는 러시아 문서를 2003년에 중국어판으로 발간한 자료들이 학자들에게 공개되어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학자들이 보는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분석되어질 수도 있고, 선택적으로 반영되거나 또는 논리적 전개에 부정적일 때는 제거될 수도 있는 개연성도 있다. 예를 들어 1950년 10월 2일 마오쩌둥이 스탈린에게 보낸 전보와 관련된 두 개의 상이한 문건이 발견되었다. 중국 당안(檔案)의 『마오쩌둥 군사문선』 제6권, 군사과학출판사·중앙문헌출판사, 1993년, 106~108쪽 에는 ‘조선으로 군대를 파견’ 한다는 내용과 구체적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반면 1995년 미국국가안전보관소에서 공개된 러시아연방대통령문서고에서의 자료는 몇가지 상황을 열거하면서 파병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자의 글에서도 1950년 2월 22일 스탈린이 쉬티코프를 통해 김일성에게 보낸 전보에 김일성의 남침계획에 관해 논의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중국 동지들에게도 발설해서는 않 된다는 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쉬운 대목이다. 저자 본인이 서문에서 밝혔듯 6·25전쟁의 중공군 개입을 재조사하고 재서술하려는 노력에서 공산권으로부터 새롭게 공개된 문서들을 분석하려하였다. 그러나 ‘의사결정모델 같은 행태 주의적 접근과 이론을 의도적으로 채용하지 않았다’고 밝힌 사실과, 마오쩌둥의 6·25전쟁 개입목적은 조사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진실에 가까운 객관성을 제공하기 위해 ‘자신을 마오쩌둥의 위치로 놓는 감정이입적 접근을 시도했다’는 면에 있어서 저자의 주관적 요소가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다. 이는 자신의 연구범위와 결과에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주지시키고 있다. 물론 이러한 면은 독자로 하여금 관점을 공유하고자 하는 학자다운 접근이지만 학문적 성과 측면에서 볼 때 한계성도 동시에 존재한다고 보여진다. 데이빗 쉰의 『중국의 6·25전쟁 참전』은 학문적으로 여러 각도에서 하나의 사실을 관찰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저자의 노력은 우선 각각의 사실들을 논리적으로 전개하기 위해 방대한 자료들을 반영하고 있다. 중국정부의 자료와 관련 인물들의 일기와 서신, 회고록, 문화대혁명(1966년~1976년) 이후 대중에게 재공개된 당시의 신문과 잡지, 중국 내의 공식적인 출판물, 중국의 6·25전쟁 참전과 관련된 ‘2차자료’에 수록된 인터뷰의 발췌 등 실로 방대한 자료를 하나하나에 각주를 붙이고 있다. 특히 중국공산당이 창설된 1921년부터 국공내전에서 승리하여 중화인민공화국을 선포하게 된 1949년 10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중국공산당에 대한 모스크바의 경제적·군사적 지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이었는가를 방대한 자료를 인용해 재구성함으로써 마오쩌둥이 얼마나 스탈린에게 의존해야했는지를 밝히는 한편, 중국 기관이 주장하고 있는 ‘중국의 군사력·경제력 건설에 있어서 자주적 노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도 있다. 저자는 또한 많은 부분을 당시 6·25전쟁에 참전했거나 국가정책결정에 참여했거나 지켜 본 다수의 인사들을 인

터뷰하여 부족한 부분의 객관성을 높이려고 심혈을 기울인 면이 역력하다. 특히 1949년 12월부터 1950년 2월에 걸친 스탈린과 마오쩌둥의 회동에 중국 통역으로 참석한 스저의 인터뷰를 통해 사실성을 제고시키려 했던 점은 논리 전개가 어려웠던 부분 부분들을 메워주고 있다. 저자의 주장은 중국의 6·25전쟁 참전의 배경과 역할을 재조명 해 볼 수 있는 새로운 접근방식으로 학문적 지평을 넓혔다고 보이며, 향후 역사의 진실성 추구에 정반합적으로 나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장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본다.

